

‘최다 득점’ 김도영 “홈런으로 기록 경신, 상상이 현실로”

23일 삼성전서 선두 타자 홈런 3득점 추가하며 138득점 질주 ‘40홈런-40도루’ 홈런 2개 남아 “이왕이면 광주서 달성하고파”



‘야구 천재’ KIA타 이거즈 김도영이 또 하나의 대기록을 썼다. KBO 리그 단일 시즌

최다 득점 기록을 갈아치우며 올 시즌 마지막 과제로 국내 선수 최초 ‘40홈런-40도루’ 만을 남겨두게 됐다.

김도영은 지난 23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삼성라이온즈와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시즌 15차전 1번 타자 겸 지명타자로 선발 출장해 솔로포를 포함 3타수 3안타 1볼넷 1타점 3득점을 기록했다.

특히 김도영은 이날 경기 1회말 선두 타자로 나서 솔로포를 터트리며 올 시즌 136번째 득점을 생산, KBO 리그 단일 시즌 최다 득점 기록을 경신했다. 이어 5회말 윤도현의 적시타, 7회말에는 박찬호의 적시 2루타로 득점을 추가하며 138득점으로 다시 기록을 늘렸다.

김도영은 이날 경기 후 “최다 득점 기록을 의식하고 있지 않았다”며 “더그아웃에 돌아왔는데 갑자기 감독님께서 꽃다발을 주셔서 당황했다. 꽃다발을 받고 나서야 이 기록이 있었다는 생각이 났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도영은 지난 19일 잠실 두산전 1회초 김선빈의 땅볼에 홈을 밟으며 올 시즌 136득점 짝을 기록, 이미 서건창(2014시즌 넥센히어로즈 소속)과 타이 기록을 달성한 상황이었기에 새로운 기록이 쓰일 것은 기정사실인 상황이었다. 김도영 역시 행복한 상상을 해보기도 했다.

그는 “홈런으로 최다 득점 기록을 경신하면 정말 멋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다. 정말 그렇게 돼서 더 기뻐다”며 “꽃다발을 받고 더그아웃에 장비를 풀었는데 (서)건창 선배님이 옆에 계셨다. 먼저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는데 처음에는 당황하시다가 ‘꽃다발을 직접 전해줘야 하



KIA타이거즈 김도영이 지난 23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삼성라이온즈와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시즌 15차전 1회말 선두 타자로 나서 솔로포를 터트리며 단일 시즌 최다 득점 기록을 경신한 뒤 더그아웃으로 돌아오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는데 미안하다”며 축하를 해주셨다”고 회상했다.

김도영은 올 시즌 홈런을 치기 위해 ‘착한 일’을 이어가고 있다. 메이저리거 오타니 쇼헤이와 프로그래머 페이커(본명 이상혁) 등이 좋은 결과를 바라며 선혈을 해 화제가 됐는데 그 역시 이를 따르고 있다.

그는 “지민이랑 22일 경기 전에 라커룸 정리를 하는데 안 쓰는 모자들이 많이 나왔다”며 “모자를 구매하는 팬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안다. 제 실착 모자이기도 하고 팬분들께는 의미가 있을 거 같아 사인을 해서 선물로 드리게 됐는데 우연치 않게 좋

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며 미소를 지었다.

권운민 운영1팀장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김도영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준 인물 중 한 명이다. 권 팀장은 김도영의 타선 침묵이 길어질 때마다 손가락에 매직을 그려주며 자신감을 주입했다.

김도영은 “홈런이 안 나올 때마다 권운민 팀장님께서 손가락에 매직을 그려주셨다. 네 번을 그려주셨는데 네 번 다 홈런이 나왔다”며 “30홈런-30도루를 할 때도 그 덕에 그어주셨는데 오늘은 제가 먼저 그어달라고 했다. 정말 신기하고 감사한 기운”이라고 언급했다.

자신의 뒤를 든든히 받춰주며 많은 득점을 올릴 수 있게 도와준 선배들에 대한 감사함도 전했다. 올 시즌 주로 3번 타자로 뛰어난 김도영은 최형우와 나성범, 소크라테스, 김선빈 등 경쟁한 타자들의 지원을 받았다.

김도영은 “점수 차가 어떻든 간에 항상 출루를 해서 홈에 돌아오자는 생각으로 플레이를 해왔다”며 “선배님들이 항상 득점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셨고, 그 덕분에 정규 시즌 1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항상 제 뒤에서 좋은 타격을 해주신 덕분에”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마지막 남은 대기록 40홈런-40도루에

대한 의지도 분명히 했다.

김도영은 이날 올 시즌 38번째 홈런과 40번째 도루를 완성하면서 국내 최초 40홈런-40도루에 홈런 두 개만을 남겨두게 됐다.

그는 “39도루에서 시즌이 끝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40도루를 빨리 채우고 싶었다. 리드오프로 나가서 도루 기회가 많은 좋게 할 수 있었다”며 “이왕 40홈런을 채운다면 홈에서 하고 싶다. 가장 큰 마음은 어디서든 40홈런-40도루를 하고 싶다는 것이지만 이왕이면 꼭 광주에서 마무리를 짓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전남 장애생활체육인, 내일부터 완도서 열전

13종목 22개 시·군 1622명 참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생활체육인들이 함께 어울려 소통과 화합의 축제를 펼치는 2024 전남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가 26일과 27일 ‘치유의 섬’ 완도 일원에서 펼쳐진다.

이번 대회는 26일 완도 청해진스포츠클럽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이틀간 펼쳐진다.

전남도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완도군과 종목별 경기단체가 주관하며 22개 시·군에서 1622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게이트볼과 론볼, 보치아, 파크골프 등 13개 종목에서 선의의 경쟁에 나선다.

특히 올해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파크골프가 정식 종목으로 새로 채택돼 장애인 스포츠 저변을 확대하고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청해진스포츠클럽에 마련된 체험 부스에서는 디스크 골프와 슌런, 보



치아 등 종목을 직접 경험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벽을 허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개회식은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대회 기 계양과 대회사, 축사, 선수 및 심판 대표 선서 순으로 진행된다. 식전에는 가수 박진도와 행복만의 축하 공연도 마련돼 선수단과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겸 전남도장애인체육회장은 “장애인인과 비장애인인의 소통과 화합의 축제인 장애인생활체육대회가 파도의 힘찬 기운이 넘치는 완도에서 열려 매우 뜻깊다”며 “대회에 참가한 모든 선수들의 건승을 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대화하는 축제의 장이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규빈 기자

광주서구청 김상진, 국가대표 발탁 전망 밝혔다

김창환배전국펜싱선수권대회 男 에페 개인전 금·단체전 동

광주서구청 펜싱팀 김상진이 제29회 김창환배전국남녀펜싱선수권대회 겸 국가대표선수 선발대회에서 개인 통산 첫 남자 에페 개인전 정상에 오르며 태극마크 전망을 밝혔다.

김상진은 지난 22일 강원 양구문화체육회관에서 막을 올린 이번 대회 남자 에페 개인전에서 정상에 올랐다. 남자 에페 국가대표는 이번 대회를 비롯해 4개 대회 성적을 합산해 발탁하는 가운데 김상진은 태극마크 가능성을 높였다.

김상진은 결승에서 박상영(울산광역시청)을 15-10으로 꺾으며 금메달을 차지했다. 김상진이 성인 무대에서 정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대회 제패와 함께 국가대표 전망을 밝혀 더 뜻깊은 대회가 됐다.

김상진은 남자 에페 단체전에서는 김대



광주서구청 펜싱팀 김상진(오른쪽)이 지난 22일 강원 양구문화체육회관에서 열린 제29회 김창환배전국남녀펜싱선수권대회 겸 국가대표선수 선발대회 남자 에페 개인전 경기 도중 박광현 감독의 지시를 받고 있다. 광주서구청 펜싱팀 제공

연, 김재원, 이승현과 동메달을 합작했다. 광주서구청은 32강을 부전승으로 통과한 뒤 16강에서 충남기계공고를 45-35, 8강에서 울산광역시청을 36-28로 연파했으나 준결승에서 한국체대에 40-45로 석패하며 결승 진출이 무산됐다.

강영미는 여자 에페 개인전에서 5위의

성적을 거뒀다. 강영미는 64강에서 노유진(중원대)을 15-5, 32강에서 김현아(경기도청)를 15-6, 16강에서 박하빈(울산대)을 15-8로 연파했으나 8강에서 임태희(계룡시청)에게 13-15로 고배를 마시며 준결승에 오르지 못했다.

한규빈 기자